

『법화경』에서의 사리불의 위상에 대한 소고

—「제3비유품」의 bodhisattvasammantrita,
bodhisattvarahasya, bodhisattvādhiṣṭhāna를 중심으로—

하영수
(금강대)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붓다가 사리불의 일불승 이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설한 「비유품」의 경문을, 〈경문A〉 〈경문B〉 〈경문C〉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중에서 〈경문B〉는 범어본과 두 한역 『정법화경』·『묘법연화경』과의 대응 관계가 모호하다. 또한 범어본 〈경문B〉에 관해서는 여러 번역들 사이에서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번역상의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사리불이 석가모니 붓다의 교화에 다시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하는 bodhisattvasammantrita, bodhisattvarahasya와 사리불의 기억을 모두 망각시킨 계기로서 설명되는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용어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한 번역들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어떤 번역들은 세 용어의 보살을 동일인물로 간주함으로써, 범어본 〈경문B〉에 대해 모호함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번역들은 bodhisattvasammantrita/bodhisattvarahasya와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주체를 구별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그 중에는 bodhisattvasammantrita와 bodhisattvarahasya를 모두 법화 일승과 등치시킴으로써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해 필자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bodhisattvasammantrita와 bodhisattvarahasya는 붓다의 일불승 교화에 대한 사리불의 특수한 참여를 의미한다. 즉 필자는 bodhisattvasammantrita를, 사리불이 붓다의 일불승 교화에 있어 교단

내부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은밀한 언약(密約)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bodhisattvarahasya는 사리불의 그 계획이 비밀로서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용어로 추정하였다. 그 계획이 비밀리에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석가보살=석가 모니 붓다의 전생은 과거세의 사리불에게 bodhisattvādhiṣṭhāna를 걸었던 것이다. 위의 <경문B>의 세 문구에 대한 필자의 이해는, 교단 내부에서 성문의 행세를 하는 보살의 존재에 관해 언급하는 「오백제자수기품」의 해당 내용에 부합한다.

본고의 이해에 의하면, 초기불교에서 智慧第一로 불리던 사리불은 『법화경』 내에서도 성문의 모습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위대한 보살로 간주된다.

주제어: 법화경, 비유품, 석가보살, 사리불의 보살행, 보살의 밀약, 보살의 비밀, 보살의 가치

I. 서론

사리불(skt. Śāriputra)이 초기불교 교단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초기불전에서 그는 붓다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 ‘智慧第一’로 불렸으며, 종종 붓다를 대신하여 법문을 설했다고도 전해진다. 그러한 사리불의 位相은 대승경전에도 수용된 듯하다. 그는 초기대승경전 중 하나인 『반야경』이나 『유마경』 등에서 초기교단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여, 그의 지혜가 아직 聲聞(śrāvaka)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한편으로 반야 설법이 전개되는 데에 있어 중대한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불교사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법화경(Saddharmapuṇḍarīkasūtra)』은 위와 같이 초기교단을 대표하는 인물인 사리불에 대해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것은 사리불이 성문이 아니라 원래는 ‘보살’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중생을 성불의 길로 이끈다는 『법화경』의 一佛乘(ekabuddhayāna)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법화경』의 이러한 선언에 의해 붓다의 수제자인 사리불은 성문을 대표하는 인물에서 대승의 보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다만 사리불의 위상과 관련된 위의 『법화경』의 언급에는 추가적인 고찰이 요구된

다. 사리불이 본래 ‘보살’이었다는 설명이 이루어지는 곳은 「제3비유품」인데, 그 「비유품」의 해당 경문을 두 한역 『정법화경』·『묘법연화경』과 범어본 『법화경』을 대조한 결과, 다소간의 상이함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즉 범어본의 해당 부분에는 “bodhisattvasaṃmantrita” “bodhisattvarahasya” “bodhisattvādhiṣṭhāna”라는 세 개의 문구가 확인되지만, 두 한역에서는 이 문구들의 번역이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거나, 다소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본 법화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상이함은 우리에게 무관심보다는 적극적인 이해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범어본의 “bodhisattvasaṃmantrita” “bodhisattvarahasya”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세 문구를 중심으로 문헌학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여러 번역을 검토한 후에 필자의 번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살로서의 사리불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본론

1. 「비유품」의 해당 경문에 대한 문헌적 검토

「제2방편품」에서 붓다에 의해 일불승의 교의가 설해지자, 그 뜻을 깨달은 사리불은 매우 기뻐하며 「제3비유품」의 서두에서 일불승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피력한다. 그러자 붓다는 사리불의 이해가 타당함을 긍정하면서, 많은 대중 앞에서 그에 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힌다. 바로 사리불이 ‘성문’이 아니라 ‘보살’이라는 선언이다. 다소 긴 경문이므로, 이를 편의상 〈경문A〉, 〈경문B〉, 〈경문C〉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인용하도록 한다.

1) 〈경문A〉, 〈경문B〉, 〈경문C〉의 확인

사리불에 관하여 중대한 선언이 설해지는 「비유품」의 경문을, 범어본-범어본의 한글역-정법화경-묘법연화경의 순서로 제시하도록 한다.¹⁾ 아울러 대조를 위해 제시한 한역에 관해서는 원문을 그대로 표기하고자 한다. 〈경문A〉는 다음과 같다.

〈경문A〉

범어본: ārocayāmi te śāriputra pratedayāmi te 'sya sadevakasya lokasya purataḥ samārakasya sabrahmakasya saśramaṇabrāhmaṇikāyāḥ prajāyāḥ purato mayā tvam śāriputra viṃśatīnām buddhakoṭīnayutaśatasahasrāṇām antike paripācito 'nuttarāyāṃ samyaksambodhau/ mama ca tvam śāriputra dīrgharātram anuśikṣito 'bhūt/(SP(KN) 64, 8-11)

한글역: 사리푸트라여, 천신과 악마와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loka) 앞에서, [또한] 사문·바라문을 포함한 생류(生類, prajā) 앞에서 나는 그대에게 고하노라(밝히리라). 나는 그대에게 알려주리라. 사리푸트라여, 그대는 나에게 의해 이백만코티·나유타나 되는 여러 부처님들 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향해 성숙되어져 왔다. 또한 사리푸트라여, 그대는 오랜 시간 동안에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왔다.

정법화: 今吾班告天上世間沙門梵志諸天人人民阿須倫 佛知舍利弗 曾以供奉三十二千億佛 而爲諸佛之所教化 當成無上正眞道 吾身長夜亦開導汝以菩薩誼(T09, 74a22-26)

묘법화: 吾今於天人沙門婆羅門等大衆中說 我昔曾於二萬億佛所 爲無上道故 常教化汝 汝亦長夜隨我受學(T09, 11b9-11)

〈경문A〉는 사리불의 일불승에 관한 이해를 승인하면서, 사실은 그와 붓다 사이에 현생의 인연을 넘어 먼 과거세로부터 지속되는 인연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인연이란 ‘그대(=사리불의 前身)’가 ‘나(=석가모니 붓다의 前身)’에 의해 위없는 깨달음을 향해 교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즉 사리불이 아주 오랜 과거세로부터 무상정등각을 위해 교화를 받아온 ‘보살’이라는 것이 〈경문A〉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위의 경문에는 두 유형의 보살이 존재함에 유의하도록 한다. 먼 과거세에 많은 붓다의 곁에서, 사리불의 前身을 무상보리를 향하도록 교화한 석가모니 붓다의 전신으로서의 ‘보살’(이하, 석존보살로 약칭), 석존보살의 교화를 받은 사리불의 전신으로서의 ‘보살’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번역에 관해서 검토하면, 범어본과 『묘법연화경』의 번역은 문제없이 대응

1) 본고의 주제에 관해 荻谷定彦, 松濤誠廉, 植木雅俊, 松本史朗 등이 선행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는 국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제본 법화경을 대조하는 같은 방식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마츠모토 시로(松本史朗) 씨가 그의 저서 『法華經思想論』에서 일관되게 채용하고 있는 작업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법화경 연구에 있어 이상적이며, 또한 유용한 방식이다. 따라서 「비유품」의 해당 경문에 관해서는 이 방식을 채용하였다. 선행연구에 관해서는, 荻谷定彦 1983, 225-228; 松濤誠廉 2001 289-290; 植木雅俊 2008(2011 再版), 247-249의 각주 41-45; 松本史朗 2010, 201-214 참조.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법화경』은 이해가 쉽지 않으나, “曾以供奉三十二千億佛 而爲諸佛之所教化 當成無上正眞道”로 되어 있어, 사리불의 전신을 교화한 주체를 “諸佛”로 규정하고, 이 “諸佛”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吾身長夜亦開導汝以菩薩誼”라고 하여, 제불의 교화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석가모니 붓다의 전신(=吾身) 역시 사리불의 ‘전신(汝)’을 교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법화경』의 위의 번역문 역시 석가모니 붓다와 사리불의 과거 인연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경문B>가 이어진다.

<경문B>에는 본고에서 주목하는 “bodhisattvasaṃmantrita” “bodhisattvarahasya”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세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세 문구에 대해서는 추후 번역을 시도하고자 하므로, 여기서는 원문의 형태로 제시한다.

<경문B>

범어본: sa tvam śāriputra bodhisattvasaṃmantritena bodhisattvarahasyeneha mama pravacana upapannaḥ/ sa tvam śāriputra bodhisattvādhiṣṭhānena tat paurvakam caryāpraṇidhānam bodhisattvasaṃmantritaṃ bodhisattvarahasyaṃ na samanumarasi/ nirvr̥to ’smīti manyase/(SP(KN) 64, 11-14)

한글역: 그러한 그대는 bodhisattvasaṃmantrita에 의해서 bodhisattvarahasya에 의해서 내가 교화(pravacana)하는 곳, 바로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 샤리푸트라여, 그러한 그대는 bodhisattvādhiṣṭhāna에 의해서 과거의 그 행(行, caryā)과 서원(誓願, praṇidhāna) (나아가) bodhisattvasaṃmantrita와 bodhisattvarahasya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대는 ‘나는 열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법화: 爾緣此故興在吾法 如來威神之所建立 亦本願行念菩薩教 未得滅度自謂滅度(T09, 74a26-28)

모법화: 我以方便引導汝故 生我法中 舍利弗 我昔教汝志願佛道 汝今悉忘 而便自謂已得滅度(T09, 11b11-14)

먼저 범어본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행(行, caryā)과 서원(誓願, praṇidhāna)”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리불이 명백하게 보살의 서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실천해온 ‘보살’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런데 이 경문에는 몇 가지 특수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리불이 붓다의 교화 영역 속에 다시 오게 된 이유가 “bodhisattvasaṃmantrita”와 “bodhisattvarahasya”라는 두 문구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둘째, 사리불은 과거에 보살도로 교화되었지만, 현재는 ‘열반을 얻었다’는 것, 즉 소승의 아라한과 성취에 만족하고 있다.

셋째, 사리불이 과거에 자신이 보살이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망각한 계기는 “bodhisattvādhiṣṭhāna”이다. 이 “bodhisattvādhiṣṭhāna”에 의해 망각된 기억에는 보살의 행과 서원뿐 아니라, 사리불로 하여금 붓다의 교화에 다시 태어나게 한 이유인 “bodhisattvasaṃmantrita”와 “bodhisattvarahasya”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본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범어본의 내용과 두 한역은 번역에 있어 대응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먼저 『정법화경』을 검토한다. 범어본의 “bodhisattvasaṃmantrita”의 ‘saṃmantrita’는 성스러운 말, 眞言 등을 뜻하는 mantra와 관련이 있는 용어로서, “의도된(deliberated)·숙고된(considered)” 등의 의미이다.²⁾ 이에 해당하는 번역어를 『정법화경』에서 구하면, 〈경문B〉에는 해당번역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경문A〉의 마지막 구절에 “以菩薩誼”이 확인된다. 아마도 『정법화경』은 “bodhisattvasaṃmantrita”를 앞의 구절에 연결시켜 번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bodhisattvarahasya”의 ‘rahasya’는 비밀, 비밀의 가르침 등의 의미인데, 『정법화경』에는 유사한 용어가 보이지 않는다.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adhiṣṭhāna’는 일반적으로 加持로 번역되는 용어인데, 관련성이 있는 술어로 “如來威神之所建立”가 확인된다. “bodhisattvādhiṣṭhāna”가 “如來의 威神”으로 번역된 것으로 추측된다.³⁾ 그리고 사리불이 과거의 수행과 서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범어본의 구절 “tat paurvakam caryāpraṇidhānam bodhisattvasaṃ mantritaṃ bodhisattvarahasyaṃ na samanūsmaṣi”가 “亦本願行念菩薩教”로 번역되어 있다. 부정문이 긍정문으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묘법연화경』은 범어본의 세 문구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번역어를 구하기 어렵다. 사리불이 붓다의 교화영역에 태어난 이유로 언급한 “bodhisattvasaṃmantrita”와 “bodhisattvarahasya”에 관해서, “我以方便引導汝故 生我法中”이라 하는 점으로부터, 이 두 문구가 “방편으로 인도했기에(以方便引導)”로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있

2) Monier-Williams 1988, 1180.

3) 松本史朗 씨는 『법화경』의 “bodhisattvādhiṣṭhāna”와 유사한 용례로, 『팔천송반야경』에 “tathāgatādhiṣṭhāna”의 용례가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松本史朗 2010, (691의 각주)196 참조.

다. 그러나 사리불이 과거의 보살 수행을 망각한 이유로서 언급한 “bodhisattvādhiṣṭhāna”에 관해서는 대응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다.

이어지는 <경문C>에서 붓다는 사리불이 잃어버린 과거세의 기억 등을 떠올리기를 의도하며, “바른 가르침의 흰 연꽃(saddharmapuṇḍarīka)”의 법문, 즉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음과 같다.

<경문C>

범어본: so 'haṃ tvaṃ sārīputra pūrvacaryāpraṇidhānajñānānubodham anusmārayitukāma imaṃ saddharmapuṇḍarīkaṃ dharmaparyāyaṃ sūtrāntaṃ mahāvai-pulyaṃ bodhisattvāvādaṃ sarvabuddhaparigrahaṃ śrāvakāṇāṃ saṃprakāśayāmi//(SP(KN) 64, 14-65, 2)

한글역: 사리푸트라여, 그러한(so) 나는 그대가 과거세의 行(caryā)과 願(praṇidhāna)과 知(jñāna)와 了解(anubodha)를 떠올리기를 바라면서, 이 ‘바른 가르침의 흰 연꽃’이라는 법문(dharmaparyāya), 경전의 궁극(sūtrānta), 대방등(mahāvai-pulya), 보살을 위한 가르침(bodhisattvāvāda), 일체의 붓다들이 수호하는 법(sarvabuddhaparigraha)을 (그대를 포함한) 성문들에게 상세히 설하는 것이다.

정법화: 舍利弗 汝因本行欲得識念無央數佛 則當受斯正法華經一切佛護 普爲聲聞分別說之 (T09, 74a28-b1)

묘법화: 我今還欲令汝憶念本願所行道故 爲諸聲聞說是大乘經 名妙法蓮華 教菩薩法 佛所護念 (T09, 11b14-16)

<경문C>에 관해서는 제본 법화경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붓다가 사리불에게 과거의 기억 등을 떠올리기를 의도하며 설하는 가르침이 『법화경』이라는 점이다. 이는 <경문A>에서 석존보살이 사리불의 전신에게 대승으로 교화했다는 그 교화의 내용이 『법화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사리불과 붓다의 과거 인연을 설하는 세 경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문A>와 <경문C>는 제본 법화경이 대체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문B>에 관해서는 제본 법화경 사이에 상이함이 두드러진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bodhisattvasaṃmantrita” “bodhisattvarahasya” “bodhisattvādhiṣṭhāna”에 관해서는 범어본과 『묘법연화경』 사이에 그 상이함이 현저하다. 한편, 범어본의 세 문구 중에서 “bodhisattvasaṃmantrita” “bodhisattvarahasya”는 사리불이 붓다의 교화

에 다시 오게 된 이유로서 언급되었고, “bodhisattvādhiṣṭhāna”는 사리불이 붓다의 교화에 다시 오게 된 이유를 포함하여 과거의 모든 기억을 망각하게 된 계기로서 설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범어 사본에 의한 <경문B>의 세 문구 재확인

<경문B>에는 『묘법연화경』에서 직접적인 대응을 구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구들이 추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래에서는 보다 확실한 고찰을 위한 예비적인 단계로서, <경문B>의 구절을 범어 사본에 의거하여 확인해 보도록 한다.

『법화경』의 사본은 발견된 지역에 따라서, 1. 중앙아시아계 사본, 2. 카시미르(길기트)계 사본, 3. 네팔·티벳계 사본의 셋으로 분류된다. 각 계통에 속하는 사본의 해당 구절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아시아 계통의 사본(통상 O본으로 불림)에서는 사리불이 붓다의 교화에 다시 오게 된 이유를 설하는 부분, 즉 범어교정본에서 “bodhisattvasaṃmamtritena bodhisattvarahasyena”로 되어있는 부분이 “tathāgatādhiṣṭhānena bodhisattvasaṃ-bodhisattvasaṃmamtritena bodhisattvarahasyena bodhisattvapranidhānena”로 되어 있다.⁴⁾ 범어교정본에 비해, “tathāgatādhiṣṭhānena(여래의 加持에 의해서)”가 추가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마지막에 “bodhisattvapranidhānena(보살의 誓願에 의해서)”가 다시 추가된 형태이다. 또한 사리불이 과거의 기억을 모두 망각한 이유로서 제시된 교정본의 “bodhisattvādhiṣṭhānena”가 사본에는 “tathāgatādhiṣṭhānena”로 되어 있다. 본 사본 독법의 특징은, “bodhisattvasaṃmamtritena bodhisattvarahasyena”의 ‘bodhisattva’와 그가 기억을 망각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bodhisattvādhiṣṭhānena”에서의 ‘bodhisattva’를 다른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사본에 의하면 사리불의 기억을 망각하도록 adhiṣṭhāna(加持)를 더한 주체는 ‘여래’이다.

다음으로 길기트 사본에는 해당 구절이 결락되어 있다.⁵⁾

한편, 네팔·티벳 계통의 사본은 현행 범어 교정본과 대부분 일치한다.⁶⁾

4) Hirohumi TODA 1981, 36.

5) Shoko WATANABE 1975, 29.

6) Hirohumi TODA 1986, 35-38. 참고로, 티벳역 『법화경』(Dam pa'i chos pādma dkar poḥi mdo)에서는 bodhisattvasaṃmamtritena, bodhisattvarahasyena, bodhisattvādhiṣṭhānena 각각을 “byang chub sems dpa'i man ngag(菩薩의 教語)”, “byang chub sems dpa'i gsang chen gyis(菩薩의 大秘密)”, “byang chub sems dpa'i byin gyis rlabas kyis(菩薩의 加持)”로 번역하고 있어, 이 또한 현행 범어 교정본과 일치하는

이상의 범어사본들과 현행의 범어본 <경문B>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독법으로 이해된다. 한 가지 특징적인 독법은 비교적 고층에 속하는 중앙아시아 사본(대략 9-10세기경)의 “tathāgatādhiṣṭhānena”의 구절이다. 이 독법은 286년에 번역된 『정법화경』의 “如來威神之所建立”과 대응된다.⁷⁾ 또한 406년에 번역된 『묘법연화경』에서도 범어본의 “bodhisattvasaṃmantrītena bodhisattvarahasyena”에 해당하는 부분이 “我以方便引導汝”라는 유사한 의미로 번역되어 있었다. 이는 현행 범어본의 이 문구들이 반드시 범어본에만 한정되는 특수한 맥락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경문B>의 세 문구에 대한 제 번역의 검토

<경문B>에서 사리불이 붓다의 교화에 다시 오게 된 이유로서 언급된 “bodhisattvasaṃmantrīta” “bodhisattvarahasya”, 그리고 붓다의 교화에 다시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망각하게 한 “bodhisattvādhiṣṭhān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제 번역을 검토하도록 한다.

1) 세 bodhisattva를 동일 인물로 보는 번역

범어본 『법화경』의 현대어 역으로 정평이 있는 마츠나미 세이렌(松濤誠廉)·나가오 가진(長尾雅人)·탄지 테루요시(丹治昭義)의 공역에는, <경문B>가 대단히 난해하며 그것의 번역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 고층이 표현되어 있다.⁸⁾ 그 어려움은 이 부분에 관한 번역이 사소한 언어표현 상의 미묘한 문제를 넘어, 정작 <경문B>의 세 ‘bodhisattva’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상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아래에서는 제 번역을 소개하면서 그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먼저 난조분유(南條文雄)의 비판적 교정본의 감수를 맡았던 케른(Kern, H.)은 그의 영역에서 “bodhisattvasaṃmantrītena” “bodhisattvarahasyena” “bodhisattvādhiṣṭhānena”를 각각 “by the counsel of the Bodhisattva(보살의 조언)” “by the decree of the Bodhisattva(보살의 교훈)” “Owing to the mighty will of the

독법이다. 티벳역 교정본에 관해서는 中村瑞隆 1976, 64 참조. 티벳역의 번역은 河口慧海 2002, 66을 참조.

7) Seishi KARASHIMA 1992, 64.

8) 松濤誠廉, 長尾雅人, 丹治昭義 共譯 2001, 289-290.

Bodhisattva(보살의 강력한 의지력)”로 번역하고 있다.⁹⁾ 그의 번역에는 주석이 없어 위의 보살이 누구를 지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보살이 대문자 ‘Bodhisattva’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보살이 조언이나 교훈을 베풀고, 강력한 의지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그는 이 세 bodhisattva를 동일한 석가보살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해 혼성범어사전 *Hybrid Sanskrit Grammar and Dictionary*의 저자 에저튼(Flanklin Edgerton)은 “bodhisattvasammantrita” “bodhisattvarahasya”를 각각 “the bodhisattva-plan and bodhisattva-mystery”로 번역하면서, 이때의 bodhisattva가 석가보살이 아니라 사리불이라고 밝힌다.¹⁰⁾ 그는 케른이 세 문구의 bodhisattva를 석가보살로 번역한 것이 오류이며, 이 문구들이 사리불의 과거 수행과 서원을지시하는 구절(“paurvakam caryāpranidhānam”)과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bodhisattvasammantrita” “bodhisattvarahasya”의 주체 역시 사리불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범어의 구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번역이 어려운 sammantrita에 대해, ‘plan(계획)’이라는 획기적인 번역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에저튼이 sammantrita를 plan으로 번역한 것은 이 난해한 문구를 이해하는 데에 다소나마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이라는 번역은 이와모토(岩本裕) 씨와 앞서 소개한 마츠나미(松濤誠廉) 씨의 번역에 채용되었다. 다만 이 두 번역은 에저튼의 ‘sammantrita=plan’을 채용하면서도 보살의 주체를 상징하는 점에 있어서는 에저튼과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즉 이와모토 씨는 세 문구의 보살을 모두 ‘석가보살’로 보는 반면¹¹⁾, 마츠나미 씨 등의 공역은 세 개의 보살이라는 용어가 모두 ‘사리불’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²⁾ 이 두 번역은 에저튼이 제시한 ‘sammantrita=plan’의 번역을 수용하면서도, 그가 케른의 번역이 오류임을 지적하며 강조한 범어의 구문상

9) Kem, H. 1963, 65.

10) Edgerton Flanklin 1953, 580.

11) 坂本幸男, 岩本 裕 譯 1965, 145.

12) 松濤誠廉, 長尾雅人, 丹治昭義 共譯 2001, 85. 한편 이 번역은 해당 번역본의 미주에서 보살의 주체가 석가보살일 수도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289-290). “そのお前は、菩薩としての(私の)教えにより、すなわち秘奥の教えにより、いま私の説法の座のなかに生まれた。しかしお前は、菩薩によって力を加えられて行なった過去の修行や誓願も、菩薩の教えも、菩薩の秘要も思い出さないで(下略)”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러한 그대는 보살로서의 [나의] 가르침에 의해, 즉 비밀의 가르침에 의해 지금 나의 설법처에 태어났다. 그러나 그대는 보살에 의해 힘이 더하여져, 행해왔던 과거의 수행도, 서원도, 보살의 가르침도, 보살의 비밀도 기억하지 못하고서 (이하 생략)”

의 문제를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세 문구의 보살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범어 구문상의 이유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에저튼에 의해 지적되었다. 둘째, 문맥상의 이유이다. 앞의 두 문구는 사리불이 붓다의 교화에 다시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뒤의 “bodhisattvādhiṣṭhāna”는 그 이유를 포함한 모든 기억을 망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전자와 후자의 보살은 문맥상 지시 대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문헌학적인 이유이다. 중앙아시아 출토 사본과 『정법화경』의 대응, 즉 ‘bodhisattvasaṃmantritenā=以菩薩誼’ ‘tathāgatādhiṣṭhāna=如來威神’의 대응은 사리불이 붓다의 교화에 다시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에서의 ‘bodhisattva’와 사리불의 모든 과거 기억을 지워버린 ‘주체(=tathāgata)’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세 문구의 보살 중에서 saṃmantrita와 rahasya의 주체와 adhiṣṭhāna의 주체는 다른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세 bodhisattva를 두 인물로 구별하는 번역

이 보살의 주체를 구별하는 점에 관해, 우에키(植木雅俊) 씨와 마츠모토(松本史朗) 씨는 선행하는 번역의 오류를 뛰어넘는 데에 성공했다.¹³⁾ 이 두 번역은 번역상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saṃmantrita · rahasya의 bodhisattva와 adhiṣṭhāna의 bodhisattva를 각각, 과거세의 사리불, 과거세의 석가모니불로 구분하고 있다.¹⁴⁾ 또한 카리타니(荻谷定彦) 씨의 번역도 보살의 의미를 구별하는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¹⁵⁾ 이러한 번역은 앞서 제시한 번역들, 즉 세 문구의 bodhisattva를 구별하지 않는 번역에 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각각의 번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13) 植木雅俊 2008(2011 再版), 181; 松本史朗 2010, 201-202.

14) 특히 松本史朗 씨는 bodhisattvādhiṣṭhāna에 관해, 『정법화경』과 중앙아시아 사본의 독법 및 『팔천송반야경』의 tathāgatādhiṣṭhāna 용례를 근거로, ‘tathāgatādhiṣṭhāna’가 원문맥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松本史朗 2010, 205-206.

15) 荻谷 씨는 bodhisattvasaṃmantrita/bodhisattvarahasya의 bodhisattva를, “일체중생이 모두 본래부터 보살(一切衆生が皆悉く本來よりボサツ)”이라는 의미로 보고,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보살을 석가보살로 본다. 상기의 두 번역과 동일한 이해는 아니지만, 전자를 『법화경』의 가르침 자체, 후자를 석가보살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보살의 의미를 구별하는 범주에 포함시켰다. 荻谷定彦 1983, 224.

먼저 카리타니 씨는 bodhisattvasaṃmantrita/bodhisattvarahasya를 각각 “보살의 敎誡” “보살의 秘密”로 번역하고¹⁶⁾, 이때의 보살의 의미를 일관되게 “일체중생이 모두 본래부터 보살(一切衆生が皆悉本來よりボサツ)”로 이해한다.¹⁷⁾ 즉 이 두 문구의 bodhisattva는 특정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화의 가르침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은, 법화의 가르침이 성문을 보살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원래 보살 그 자체임을 밝히는 것이라는, 그의 법화경 이해에서 유래된 것이다.¹⁸⁾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해에 대한 논증의 일환으로 『제7화성유품』에 관해 언급한다.¹⁹⁾ 「화성유품」은 석가모니 붓다와 성문제자의 인연을 밝히는 품이다. 이 품에서는 아주 먼 과거세에 석가모니 붓다가 보살 시절이었을 때에, 무수한 중생을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교화했고, 그 당시에 석가보살의 교화를 받은 보살들이 지금의 성문 제자들이라고 설하고 있다.²⁰⁾ 본고에서 확인하려는 「비유품」의 경문을 「화성유품」과 연결시킨 점에 관해서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의 이해대로 이 두 품이 대응관계에 있다면, 그가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bodhisattva를 석가보살로 언명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지금 성문으로서의 사리불=당시의 보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무엇보다 이러한 이해에 내재하는 최대의 난점은, 과거세에서 왜 석가보살이 사리불의 전신에게 법화의 가르침으로 교화를 하고서는 그의 모든 기억을 일부러 지우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법화경』을 설하여 그때의 기억을 회복시키려는 것인지, 그 이유가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에키 씨는 〈경문B〉의 세 문구에 관해 “그대가 보살이라는 교계(あなたが菩薩であるという敎誡)”, “그대가 보살이라는 비밀(あなたが菩薩であるという秘密)”, “내가 과거에 보살이었던 시기의 가지력(私がかつて菩薩[であった時]の加持力)”이라고 번역한다.²¹⁾ 이 번역은 보살의 주체를 각각 보살로서의 사리불과 석가보살로 명시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보살의 교계, 보살의 비밀이라는 번역의 의미를 해설함에 있어, 「방편품」의 139·140계송에 대해 언급한다.²²⁾ 이를 통해 ‘사리불 자신이 사실은 보살’이라는 것이 교계와 비밀의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번역의 경우에

16) 荻谷定彦 1983, 224.

17) 荻谷定彦 1983, 255 각주 44) 참조.

18) 그의 一切衆生皆悉菩薩에 관해서는, 荻谷 1983, 105-110 참조.

19) 荻谷定彦 1983, 224-225.

20) SP 185,10-186,2.; 『묘법연화경』(T09, 25c7-10).

21) 植木雅俊 2008(2011 再版), 181.

22) 植木雅俊 2008(2011 再版), 248-249의 미주44) 참조.

도, 위의 카리타니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odhisattvādhiṣṭhāna라는 행위가 왜 필요했는가 설명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마츠모토 씨는 <경문B>의 세 문구를, “보살의 밀칙(菩薩の密勅)”, “보살의 비밀(菩薩の秘密)”, “보살의 가지(菩薩の加持)”로 번역하고 있다.²³⁾ 그리고 ‘사리불이 본래는 보살이라는 것’이 보살의 밀칙(菩薩の密勅)과 보살의 비밀(菩薩の秘密)의 의미라고 설명한다. 우에키 씨의 이해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가 saṃmantrita를 密勅으로 번역했다는 것이다. 이 밀칙이라는 번역은 사리불이 붓다의 교화에 다시 태어난 이유를 法王인 붓다로부터 받은 勅命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기의 두 번역자가 bodhisattvasaṃmantrita/bodhisattvarahasya를 법화의 가르침이라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해했던 것과 달리, 그것을 사리불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본 절에서 제시한 세 번역 중에서 필자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다만 문제는 보살의 밀칙(菩薩の密勅)의 의미를 그가 제시한 바와 같이, ‘사리불이 본래는 보살’의 의미로 이해할 경우, 과거에 석가보살에게 대승(=법화경)으로 교화를 받은 다른 대중 역시 ‘지금은 성문이지만 원래는 보살’이므로, 보살의 밀칙(菩薩の密勅)이 사리불만이 지니는 특수성을 지시하는 것인지, 그 점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즉 번역 자체는 사리불의 개인적인 임무 등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해설과 번역을 연결시키면 이는 법화로 교화를 받은 다른 대중에게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점에 모호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비밀, 밀칙의 번역과 관련하여 마츠모토 씨도 우에키 씨와 마찬가지로 「방편품」의 두 계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²⁴⁾ 필자는 이 두 번역자가 제시한 「방편품」 139·140번 계송의 이해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래에서 검토한다.

「방편품」의 계송 139·140에는 rahasya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 내용이 <경문B>의 rahasya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의혹과 의심을 버리도록 하라. 나, 법왕이 선포하노라.

“나는 [모든 이들을] 최상의 깨달음(agrabodhi)을 향해 교화하니, 나에게 있어 이곳에 성문 [제자는 단 한 명도 없느니라.”(139)

사리푸트라여, 이것이 그대(tava)의 비밀(rahasya)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나의 이 모든

23) 松本史朗 2010, 201-202.

24) 松本史朗 2010, 483-488.

성문 [제재들과 그리고 이 뛰어난 보살들도 나(mama)의 이 비밀(rahasya)을 간직하도록 하라. (140)²⁵⁾

위의 두 계송은 「방편품」의 법문을 요약하는 重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다. 즉 「방편품」의 최종적인 요약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인데, 바로 그 부분에서 비밀을 의미하는 ‘rahasya’가 사용된다. 그 rahasya의 직접적인 의미가 직전의 139계송에서 설명된다. 139계송의 내용은 붓다가 『법화경』을 설하는 장소에 많은 성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단 한 명의 성문도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붓다가 모든 중생을 최상의 깨달음(agrabodhi)을 위해 교화하기 때문이다. 즉 139번 계송의 의미는 ‘성문이 사실은 보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40번 계송에서는 ‘이것(etu←etad)’이 바로 ‘나의(mama)’, 즉 ‘붓다의’ ‘비밀(rahasya)’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법화일승의 교화가 붓다의 비밀의 법문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상기의 두 번역에서 ‘사리불이 본래는 보살’이라는 이해는 「방편품」의 이러한 ‘법화일승의 교화=비밀’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해는 부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140계송에서 rahasya가 두 번 언급되고 있고, 그 비밀의 주체를 각각 ‘tava(그대의)’와 ‘mama(나의)’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화일승의 교화가 붓다의 비밀이라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계송에서는 ‘붓다 자신의 비밀’이어야 할 법화일승의 법문을 ‘사리불 그대의 비밀’이라고 설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언뜻 생각하기에 큰 의미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바꾸어 보면, 그러한 표현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붓다는 왜 사리불에게 “사리불이여, 이것이 ‘나(mama)의 비밀’이 되어야 한다(mama śāriputraitu rahasyu bhotu). 또한, 나의 이 모든 성문 [제재들과 그리고 이 뛰어난 보살들도 ‘나(mama)의 이 비밀(rahasya)’을 간직하도록 하라”라고 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러한 변경에 의해 ‘이것=법화일승의 교화=나(=붓다)의 비밀’의 도식은 매우

25) SP(KN), 58,7-10: yapanehi kāṅkṣām iha saṃśayaṃca ārocayāmi ahu dharmarājā/
samādapemi aham agrabodhau na śrāvakāḥ kecid ihāsti mahyam//139//
tava śāriputraitu rahasyu bhotu ye cāp’ime śrāvaka mahya sarve/
ye bodhisattvās ca ime pradhānārahasyam etan mama dhārayantu//140//
『묘법연화경』권1 「제2방편품」(T9, p.10b4-8):
汝等勿有疑 我爲諸法王 普告諸大衆 但以一乘道 教化諸菩
薩無聲聞弟子 汝等舍利弗 聲聞及菩薩 當知是妙法 諸佛之祕要。

명료해지며, 따라서 이해하기 훨씬 수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tava(그대의)”와 “mama(나의)”는 음가가 동일하므로 계송에서의 운율 상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즉 이 표현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다음과 같은 구도를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붓다의 비밀인 법화일승의 교화는 사리불을 제외한 대중에게 선언되었다. 그러나 붓다의 그 비밀은 사리불에게는 공유되었다. 위의 두 계송은 붓다의 비밀인 법화일승의 교화를 둘러싸고 붓다와 사리불 사이에 두 사람만의 모종의 접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두 계송에 대한 필자의 이해를 밝히면, 법화일승의 교화가 붓다의 비밀이며, 그것이 비밀의 기본적인 양상이지만, 사리불이 그 붓다의 비밀에 특수한 방식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방편품」 139·140계송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붓다의 비밀에 대한 사리불의 특수한 참여, 그것이 「방편품」의 ‘그대(=사리불)의 비밀’이며, 그것이 「비유품」의 ‘보살의 비밀’로 이어지는 것이다. 비밀(rahasya)의 용례²⁶⁾에 관한 의미상의 구별 없이, ‘법화의 교화=비밀’의 일반적 차원으로만 이해할 경우에, 사리불 이외의 모든 성문에게도 bodhisattvasammantrita, bodhisattvarahasya라는 문구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매우 특수하며, 일반적인 의미의 교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최대의 난점은 사리불의 과거 기억을 모두 지운 bodhisattvādhiṣṭhāna가 완전히 의미 불명의 행위, 또는 전혀 무의미한 행위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bodhisattvasammantrita, bodhisattvarahasya를 법화일승의 범문으로 보는 번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3. <경문B>의 세 문구에 대한 번역 제시 및 경증

1) <경문B>의 세 문구에 대한 번역 제시

사리불이 붓다의 교화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개의 문구와, 사리불이 붓다의 교화에 다시 오게 된 이유를 포함한 과거의 모든 기억을 망각하게 한 하나의 문구에 대해 번역을 시도하고 그 의미를 추정해 보도록 한다.

26) 『법화경』의 rahasya 용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하영수 2015, 52-61.

(1) bodhisattvasammantrita

sammantrita는 용례가 매우 적은 특수한 용어로 생각된다. 이 용어는 『법화경』에서도 〈경문B〉에서만 사용되며, 다른 불전에서는 그 용례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위에서 기술했듯이, bodhisattvasammantrita, bodhisattvarahasya는 붓다 교화의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sammantrita는 성스러운 말, 眞言 등을 의미하는 mantra와 관련이 있으며, 사전에서는 ‘계획된 (deberated)/고려된(considered)²⁷⁾ ‘상담하다/협의하다/의견을 표명하다/숙고하다²⁸⁾’ 등의 의미가 확인된다. 예저튼은 일찍이 이를 ‘plan’이라고 규정하였고, 이를 수용한 번역 또한 있었다. 마츠모토 씨의 密勅이라는 번역은 이 용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뛰어난 번역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이 용어가 예저튼과 위의 사전들이 제시하듯이, 기본적으로 ‘계획’ 또는 ‘의도’와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용어에 상담/협의 등의 의미가 있고, 『정법화경』에서는 “以菩薩誼”라 하여, ‘誼=議論/相議’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은 혼자서 자기의 스케줄을 짜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계획은 아니라, 사전에 누군가와 협의되고 논의된 계획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계획은 누구나가 아는 일반적인 계획은 아닐 것이다. 이에 관해 마츠모토 씨는 〈경문B〉에 사용된 sammantrita(←mantra), rahasya, adhiṣṭhāna의 용어들이 다분히 ‘밀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⁹⁾ 그가 지적한 대로 〈경문B〉에 등장하는 이 세 용어에 관한 한, ‘밀교적’이라는 특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sammantrita를 사전에 협의된 계획으로 볼 때에, 그 계획이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성질의 계획은 아닐 것이다. 즉 이 계획은 사전에 누군가와 협의되고, 매우 은밀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하는 계획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는 sammantrita를 예저튼이 제시한 의미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은밀한 계획’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은밀한 계획은 혼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거친 言約에 가까운 형태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bodhisattvasammantrita를 석가보살에게 했던 ‘보살(=사리불)의 密約’으로 번역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리불이 과거에 했던 밀약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그 의미를, 사리불이

27) Monier-Williams 1988, 1180.

28) 荻原雲來 1986(2001 12刷), 1002.

29) 松本史朗 2010, 204.

‘원래는 보살이지만 교단 내부에서 성문의 모습으로 붓다의 법화일승의 교화를 돕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내용은 앞서 카리타니 씨가 「비유품」과 관련이 있는 품으로 지적한 「제7화성유품」이 아니라, 이어지는 「제8오백제자수기품」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된다.

(2) bodhisattvarahasya

bodhisattvarahasya라는 문구는 사전의 설명에 따라 어렵지 않게 ‘보살의 비밀’이라고 번역 가능하다. 문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몇 개의 유사한 용어가 반복될 경우 그 용어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뒤에 위치하는 용어는 앞의 용어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필자가 密約으로 이해한 bodhisattvasammantrita 뒤에 위치하는 bodhisattvarahasya는 이 밀약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bodhisattvarahasya는 bodhisattvasammantrita의 ‘은밀함’이라는 속성을 명백히 규정하는 말로 이해된다. 즉 보살의 밀약(bodhisattvasammantrita)은 ‘사리불이 교단 내부에서 성문의 모습으로 붓다의 법화일승 교화를 돕는 은밀한 계획, 또는 그 약속’을 의미하며, 보살의 비밀(bodhisattvarahasya)은 그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철저한 비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그 계획은 오직 과거의 붓다와 과거의 사리불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방편품」 140 계송에서 붓다가 사리불의 비밀과 자신의 비밀을 나누어 설하고, 마치 그 비밀을 사리불에게 고지하듯이 설한 이유일 것으로 추측된다.

〈경문B〉에서 bodhisattvasammantrita와 bodhisattvarahasya의 두 문구는 과거에 석가보살에 의해 교화를 받은 사리불이 붓다의 교화에 다시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이다. 그 의미는 과거에 『법화경』을 들은 法緣으로 붓다의 교화에 다시 오게 되었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의 모든 성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며, 따라서 사리불만을 특별히 지목해서 그 이유를 새삼스럽게 설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석가보살이 가지력(bodhisattvādhiṣṭhāna)을 발휘하여 사리불의 과거 기억을 자을 필요는 더더욱 없다. 물론 『법화경』에서 과거에 교화한 모든 성문의 기억을 지웠다라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용어들이 지닌 특수성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3) bodhisattvādhiṣṭhāna

앞서 여러 이유에 의해 기술하였듯이,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bodhisattva는 bodhisattvasaṃmantrita/bodhisattvarahasya의 bodhisattva와는 다른 인물로 보아야 한다.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bodhisattva는 「화성유품」에서 언급된 석가보살로 추정된다. 이로써 번역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석가보살이 과거에 사리불에게 『법화경』으로 교화하고서, 왜 adhiṣṭhāna(加持力)를 발휘하여 그의 모든 기억을 지워야 했고, 지금의 영산회상에서는 그때의 기억을 모두 떠올리도록 다시 『법화경』을 설한다고 하는 것인가에 있다. 즉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필연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bodhisattvasaṃmantrita/bodhisattvarahasya를 법화일승의 교화로 이해한 카리타니 씨는,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의의를 경전 내에서 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³⁰⁾ 붓다의 법화일승의 교화에 대한 사리불의 특수한 참여가 이해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결과는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법화경』으로 교화하고서는 제자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다시 같은 경전을 설하는 일은, 누구도 하지 않는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의 관점에 의거하여 경전의 문맥에 접근한다면,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의미를 경전 내부에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시도하였다. 카리타니 씨에 따르면, 인도불교사에 있어 사리불이 성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고, 한편 법화일승에 의하면 사리불이 본래 보살이기 때문에, 이 대립하는 두 측면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의 과거 보살로서의 기억을 지워진 것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필요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그는 말한다.³¹⁾ 이러한 카리타니 씨의 이해는 어떤 의미에서, bodhisattvasaṃmantrita와 bodhisattvarahasya를 법화일승의 교화로 간주하는 사유의 귀착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다. 다만 bodhisattvasaṃmantrita와 bodhisattvarahasya를 법화일승의 교화에 대한 사리불의 특수한 개입이나 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bodhisattvādhiṣṭhāna에도 나름의 응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석가보살이 과거세의 사리불에게 법화일승의 법문을 설하고서 가지력에 의해서 그의 모든 기억을 지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리불의 밀약(saṃmantrita)

30) 荻谷定彦 1983, 226.

31) 荻谷定彦 1983, 226-229.

그것이 비밀(rahasya)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밀을 비밀로서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석가보살은 과거세의 사리불에게 adhiṣṭhāna를 행하여 그의 기억을 일시적으로 지웠다 는 것이 필자의 이해이다.

부연 설명이 필요한 필자의 이해를,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충한다면 다음과 같다.

과거세에 석가보살로부터 법화일승의 교화를 받은 보살 사리불은 석가보살과의 상의 하에 은밀한 계획(sammantrita)을 가지고 석가모니 붓다의 교화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 은밀한 계획은 스스로 ‘보살임을 숨기고 성문으로 교단에서 활동하면서 붓다의 법화일승 교화를 돕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승의 교화에 대한 사리불의 참여는 단순히 대중으로의 참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참여란 붓다의 상수제자나 성문교단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붓다의 일불승 교화를 돕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석가모니 붓다가 그의 교화의 최종적인 범문인 『법화경』을 설할 때에, 성문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가장 먼저 성불의 수기를 받음으로써, 성불수기의 포문을 열기로 했다. 이후 많은 성문제자들은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는 장면을 보고 환희와 감격을 느끼면서, 자신들에게도 성불수기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고서 자신들도 사리불과 같이 성불수기 받기를 希求하게 되어, 마침내 영산회상의 모든 성문들이 붓다로부터 연속하게 성불수기를 받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붓다의 성문교화가 온전히 결실을 맺게 된다. 보살 사리불은 석가보살과 이러한 밀약을 나누었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스승이 붓다가 되는 날, 그의 상수제자가 되어 교단 내부에서 붓다를 도와 스승의 성문 교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 그 약속은 둘만의 철저한 비밀이었고, 그 비밀을 비밀로서 완성시킨 것이 바로 ‘보살의 가지(bodhisattvādhiṣṭhāna)’였던 것이다. 그것은 고도의 지혜에서 비롯된 능숙한 방편이었으리라.³²⁾

이상의 내용은 bodhisattvasammantrita, bodhisattvarahasya에 대한 필자의 이해와 『법화경』에서 실제로 설해진 내용을 합목적적인 방식에 의해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보살의 가지(bodhisattvādhiṣṭhāna)’는 응당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³³⁾

32) 『묘법연화경』의 축약적인 번역 “我以方便引導汝故 生我法中”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33) 본고의 이해방식에 따르면 적어도 bodhisattvasammantrita, bodhisattvarahasya를 법화일승의 교화 일환으로 이해함으로써 초래되는 보살 가지의 무의미성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사리불의 계획이 비밀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누설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사리불의 모든 기억을 지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전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알 길이 없으나, 사유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정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사리불에게 가지력을 걸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하는 것을 예상해 보는 것이다. 그 예상 결과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방식에 의한 결과보다, 사리불의 bodhisattvasammantrita, bodhisattvarahasya을 포함한 모든 기억을 지운 편이 더욱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고, 교화의 관점에서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이다.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이 계획은 스승의 일불승 교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리불의 보살행의 일환이었다고 생각된다.

2) <경문B>의 세 문구에 대한 경증

bodhisattvasammantrita, bodhisattvarahasya를 모두 법화일승의 교화로 보는 카리타니 씨는 <경문A>와 <경문B>를 모두 「화성유품」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에서는 붓다의 법화일승 교화에 대한 사리불의 특수한 개입을 의미하는 <경문B>의 내용이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bodhisattvādhiṣṭhāna의 필요성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리불의 보살행은 반드시 역사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경전 상에서 그 근거를 구할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경문은 「제8오백제자수기품」의 구절이다.

「제8오백제자수기품」은 「제7화성유품」에 이어지는 품이다. 「오백제자수기품」의 주요 내용은 오백 명의 아라한에게 성불수기를 내리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붓다는 說法第一로 불리는 富樓那(skt. Prūṇa)를 칭찬하면서, 성문 교단 내에 특수한 보살행을 펼치는 보살들이 존재한다고 설한다. 1번 계승부터 7번 계승을 통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나로부터 이 일에 관해 듣도록 하라. 나의 아들이 어떻게 수행(caṅ)을 행했는가를, 그리고 방편의 능숙함에 잘 훈련된 그가 어떻게 이 보리의 행을 실천했는지를.(1)

이 중생들이 하열한 것을 좋아하며, 고귀한 승에 대해 크게 두려워함을 알고서,

그러하여 이 보살들은 성문이 되기도 하고, 또한 벽지불의 깨달음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면서(2)

(그와 같은) 무수한 방편의 능숙함으로 많은 보살들을 교화한다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사실 우리들은 성문이며, 우리들은 최상의 깨달음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다고 말한다.”라고 한다네.(3)

실로 그들의 이러한 수행을 뒤따르던 코티의 중생들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니, 저열한 것을 좋아하며 나태한 그들 모두가 마침내 붓다가 된다네.(4)

이들은 알려지지 않은(ajñāta) 행을 실천하고 있으니, ‘우린 해야 할 일이 적은 성문’이라 하며, 일체의 생과 사를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은) 자신이 머무는 국토를 청정케 한다네.(5)

그들은 자신들에게 애담과 진애와 우치가 있음을 보이기도 하고,

또한 중생들이 견해에 매여 있는 것을 알고서, 그들의 견해에 동조하기도 한다네.(6)

이와 같이 행동하면서, 나의 많은 성문제자들은 중생들을 방편에 의해 해탈시킨다네.

만일 그들이 행한 바를 전부 설명한다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네.³⁴⁾(7)

위의 경문은 많은 보살들이 자신이 보살임을 숨기고, 성문 교단 내에서 붓다의 조력자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설하고 있다. 이는 보살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짐짓 성문의 모습으로 교단 내에서 활동하며 붓다의 일승교화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것

34) SP(KN) 203, 4-204, 6: śrīnotha me bhikṣava etam artham yathā carī mahya sutena cīrṇā |

upāyakaūśalyasuśikṣitena yathā ca cīrṇā iya bodhicaryā ||1||

hīnādhimuktā ima satva jñātvā udārayāne ca samuttrasanti |

tatu śrāvakā bhont'imi bodhisattvāḥ pratyekabodhiṃ ca nidarśayanti ||2||

upāyakaūśalyaśatair anekaiḥ paripācayanti bahubodhisattvān |

evaṃ ca bhāṣanti vayanā hi śrāvakā dūre vayanā uttamam agrabodhiyā ||3||

etāṃ carim tesv anuśikṣamāṇāḥ paripāku gacchanti hi sattvakoṭyaḥ |

hīnādhimuktāś ca kuśīdarūpā anupūrva te sarvi bhavanti buddhāḥ ||4||

ajñātacaryām ca caranti ete vayanā khalu śrāvaka alpakṛtyāḥ |

nirviṇṇa sarvasū cyutopapattiṣu svakaṃ ca kṣetraṃ pariśodhayanti ||5||

sarāgatām ātma nidarśayanti sadoṣatām cāpi samohatām ca |

drṣṭīvilagnāmś ca viditva sattvāṃś teṣāṃ pi drṣṭim samupāśrayanti ||6||

evaṃ caranto bahu mahya śrāvakāḥ sattvān upāyena vimocayanti |

unmādu gaccheyu narā avidvasū sacaiva sarvaṃ caritaṃ prakāśayet ||7||

*상기의 밑줄은 교정의 의미. KN: teṣ; KN: ajñāna; KN: utpādu. 이를 SP(WT)에 의해 수정.

SP(WT). 1958, 179-180; 『묘법연화경』(T09, 2&9-22).

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송들의 내용은 본고에서 추정된 bodhisattvasammantrita · bodhisattvarahasya의 의미와 부합한다. 그 중에서 2번 계송의 “이 보살들은 성문이 되기도 하고”라는 구절은 ‘사리불의 보살로서의 은밀한 계획(bodhisattvasammantrita)’과 동일한 문맥이다. 또한 5번 계송의 “이들은 알려지지 않은(ajñāta) 행을 실천하고 있으니”라는 구절은 본고에서 제시한 비밀의 의미, 즉 그 은밀한 계획을 비밀로 하여 활동한다는 의미와 일치한다. 5번 계송의 이 부분을 『묘법연화경』에서는 “안으로는 보살행을 감추고, 겉으로 성문의 모습을 드러낸다(內祕菩薩行 外現是聲聞)”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러한 번역은 본고의 “bodhisattvarahasya”와 의미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계송들은 명백하게 교단 내에서 일불승의 조력자로 활동하는 보살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명은 본고에서 이해한 〈경문B〉의 내용과 부합한다.

따라서 〈경문A〉와 〈경문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해가 가능하다. 〈경문A〉는 붓다와 사리불의 과거 인연을 설하는 것으로 이는 「화성유품」과 대응한다. 이는 ‘법화일승의 교화=붓다의 비밀’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한편 사리불의 특수한 보살행을 설하는 〈경문B〉는 교단 내에서 성문의 모습으로 보살행을 펼치는 보살들에 대한 설명인 「오백제자수기품」에 대응한다. 이는 일승교화에 대한 보살들의 특수한 개입을 의미한다.

필자의 경문 대응에 관한 이해는 경전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법화경』 해석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되는 천태대사 지의는 『법화경』 전반부[迹門]의 설법이, 중생의 근기를 고려하여 法說周→譬說周→因緣說周의 세 단계로 전개된다고 이해하고 있다.³⁵⁾ 이른바 三周說法이다. 붓다는 먼저 상근기의 대중을 위해 일불승의 법을 직접 설하고, 다음으로 이를 이해하지 못한 대중에게 비유로 설하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인연을 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삼주설법은 앞에서 매우 간략한 형태로 그 내용이 설해지고, 뒤로 갈수록 그 설법은 자세해진다는 관계에 있다. 즉 법설에서 설해진 내용이 비설과 인연설 등에서 더욱 상세히 설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카리타니 씨가 제시했고 필자 또한 동의했듯이, 법설에 해당하는 〈경문A〉는 인연설에 해당하는 「화성유품」과 대응한다. 그렇다면 사리불의 특수한 보살행을 설하는 〈경문B〉는 어디에 해당할까. 필자는 보살들이 보살임을 감추고 성문으로 행세한다는 내용의 「오백제자수기품」이 바로 이 〈경문B〉에 대응한다고 추정한다. 역으로, 이 양자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전의 앞부분인 〈경문B〉에는 전혀 존재하지

35) 『법화문구』卷4 「釋方便品」(T34, p45c17-18): “一爲上根人法說 二爲中根人譬說 三爲下根人宿世因緣說.”

않았던 내용이 갑자기 뒤의 「오백제자수기품」에서 설해지게 된다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전개가 『법화경』 자체에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삼주설법은 대중의 근기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붓다의 일승 교화를 깨닫고 성불수기를 받은 사리불의 근기는 역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경문B〉와 「오백제자수기품」의 상기 내용이 서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사리불의 근기가 낮고, 위의 계승에 의해 칭찬을 받은 부루나의 근기가 오히려 높다는 부자연스러움이 뒤따른다. 그 결과, 7번 계승에서 “이와 같이 행동하면서, 나의 많은 성문제자들은 중생들을 방편에 의해 해탈시킨다네.”라고 하여 성문 행세를 하는 보살이 많다는 경문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상종의 窺基가 『법화현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화경』의 성문 중에서 오직 부루나 한 사람만이 가장 높은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³⁶⁾ 물론 그러한 규기의 이해는 오행라기보다는 번역 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화성유품」 등에서 설해지는 깊은 인연법에 관한 가르침을 고려한다면, 사리불이 가장 먼저 붓다의 법화일승 법문을 이해하고 성불수기를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그만한 인연이 있는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성문들이 적극적으로 受記를 希求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연속적으로 성불수기가 이어짐으로써 붓다의 성문교화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법화경』에서 사리불의 위상을 부루나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본고의 이해에 의하면, 사리불이야말로 붓다의 법화일승의 교화에 대한 성문교단 내부의 최고 조력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이상으로 붓다가 사리불의 일불승 이해를 승인하면서 설한 경문을, 〈경문A〉 〈경문B〉 〈경문C〉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특히 〈경문B〉의 세 문구 bodhisattvasaṃmantrita, bodhisattvarahasya, bodhisattvādhiṣṭhāna는 번역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였다.

본고에서는 이 세 문구에 관한 여러 번역들을 소개하며 그 문제점을 고찰했다. 기

36) 『법화현찬』 卷5 「비유품」(T34, 742, b23-25): “舍利弗獨是上根聲聞 四大爲中 五百等爲下 准下經言富樓那等是法華一會應化者也.”

본적으로 세 문구의 보살을 동일 인물로 간주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이를 각각 과거세의 사리불과 석가보살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sammantrita와 rahasya를 붓다의 법화일승의 교화로 보는 이해는 이 문구들이 지니는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게 되면, bodhisattvādhiṣṭhāna가 무의미한 행위로 남게 된다. 이 문구들은 붓다의 법화일승 교화에 대한 사리불의 특수한 개입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는 <경문B>의 bodhisattvasammantrita를 과거 사리불의 은밀한 계획이나, 붓다와의 은밀한 약속 등의 의미에서 密約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를 ‘보살임을 감추고 성문교단 내에서 활동하면서 붓다의 법화일승 교화를 돕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bodhisattvarahasya는 사리불의 그 약속이 공공연한 계획이 아닌 비밀임을 명확하게 하는 말이다. 사리불의 그 계획이 온전히 비밀리에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석가보살은 보살의 가지력, 즉 bodhisattvādhiṣṭhāna을 사리불의 전신에게 발휘한 것이다. 이 bodhisattvādhiṣṭhāna는 密約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법화경』 설법에 성문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방편인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경문B>에 대한 이해는, 교단 내부에서 성문 행세를 하는 보살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는 「오백제자수기품」의 해당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이해에 의하면, 초기불교에서 智慧第一로 불리던 사리불은 『법화경』 내에서도 성문의 모습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위대한 보살로 간주된다.

원전 및 사본

SP(KN) *Saddharmapuṇḍarīka*. H. Kern and B. Nanjio eds. Bibliotheca Buddhica X, St. Pétersbourg, 1908-1912. reprinted in Osnabrück, 1970, in Tokyo, 1977.

SP(V) *Saddharmapuṇḍarikasūtra*. P.L. Vaidya ed. Buddhist Sanskrit Texts 6, Darbhanga, 1960.

SP(WT) *Saddharmapuṇḍarikasūtra*. U. Wogihara and C. Tsuchida ed. Tokyo: Sankibo Buddhist Book Store, 1958.

Shoko Watanabe

1975 *Saddharmapuṇḍarīka Manuscripts Found in Gilgit. Part2. Romanized Text*,
Published by The Reiyukai, Tokyo.

Hirohumi Toda

1981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Central Asian Manuscripts; Romanized Text*. Published
by Tokushima kyoiku Shuppan Center.

1986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III, 『徳島大學教養部 倫理學科紀要XII』.

T: 大正新脩大藏經

『妙法蓮華經』T09(鳩摩羅什 譯)

『正法華經』T09(竺法護 譯)

『妙法蓮華經文句』T34(智顓)

『妙法蓮華經玄贊』T34(窺基)

사전류

荻原雲來

1986(2001) 『漢譯對照梵和大辭典』, 鈴木學術財団,

Monier-Williams.

1988 *Sanskrit-English Dictionary*. Oxford.

Franklin Edgerton.

1953 *Hybrid Sanskrit Grammar and Dictionary*. New Haven: Yale Univ. Press.

2차 자료

하영수

2015 『법화경의 삼보 구조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금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현해(玄海)

2004 『梵文·漢譯·英譯·國譯 四本對照 妙法蓮華經 I·II·II』, 成贊會·民族社.

植木雅俊

2011 『法華經 上·下』, 岩波書店.

河口慧海

2002 『河口慧海著作集 第八卷 法華經』, うしお書店.

荻谷定彦

1983 『法華經一佛乘の研究-インド初期大乘佛教研究-』, 東方書店.

坂本幸男·岩本裕 共譯

1965 『法華經 上·中·下』, 岩波書店.

中村瑞隆

1976 「チベット譯 法華經」, 『法華經文化研究』2號.

松濤誠廉·長尾雅人·丹治昭義 共譯

2001 『法華經 I·II』, 中公文庫.

松本史朗

2010 『法華經思想論』, 大藏出版.

Ejima(江島惠教) and others.

1993 *Index to the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Sanskrit, Tibetan, Chinese*. Tokyo: The Reiyukai.

Seishi KARASHIMA

1992 *The Textual Study of the Chinese Version of the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Tokyo: The Sankibo pres.

Kem, H.

1963 *Saddharmapuṇḍarīka or the Lotus of the True Law*. Dover.

www.kci.go.kr

A Study on the Śāriputra's Status in the *Lotus Sutra*

-Focusing on the *bodhisattvasaṃmantrita*, the *bodhisattvarahasya*, and the *bodhisattvādhiṣṭhāna* in the Chapter of A Parable-

Youngsu HA

(Geumgang University)

This study considers the “Chap. of A Parable”(譬喩品) of the *Lotus Sutra* by dividing it into three parts, namely ‘Scripture A’, ‘Scripture B’ and ‘Scripture C’ which was announced through the process of approving Śāriputra’s understanding of the One Buddha-vehicle (一佛乘).

Especially with regard to ‘Scripture B’, there is ambiguity in correspondence between the Sanskrit-text of the *Lotus Sutra* and Chinese translations of *Zheng Fa Hua Jing* (正法華經) and *Miao Fa Lian Hua Jing* (妙法蓮華經). Also,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various translations of ‘Scripture B’ from the Sanskrit text into modern languages. In particular, the sections that reveal a vivid difference in translations are those on the *bodhisattvasaṃmantrita* and the *bodhisattvarahasya* which deliver the reason why Śāriputra participated in the Edification of Sakyamuni Buddha and the *bodhisattvādhiṣṭhāna* which was explained as a momentum for making Śāriputra forget his past memory.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reviewed major translations and matters related to them.

Some translations increase ambiguity by regarding the ‘three bodhisattvas’ as one single person. Whereas other translations do make

the correct distinction between the subject of *bodhisattvasammantrita*, *bodhisattvarahasya* and *bodhisattvādhiṣṭhāna*. However, one of these translations makes another mistake by equating the One Vehicle of Teachings of the *Lotus Sutra* (法華一乘) to both the *bodhisattvasammantrita* and the *bodhisattvarahasya*.

As for this, my understanding is as follows. The *bodhisattvasammantrita* and the *bodhisattvarahasya* indicate Śāriputra's specific engagement in the Buddha's One Buddha-vehicle Edification. In other words, as for the *bodhisattvasammantrita* I presume that it was Śāriputra's secret promise to play a role as an assistant to the Buddha's One Buddha-vehicle Edification from inside the Buddhist monastic order. I also assume that the term, *bodhisattvarahasya* reveals more clearly that it was a secret. To proceed the promise in secret, Śākyamunibodhisattva had performed the mighty will of Bodhisattva(*bodhisattvādhiṣṭhāna*) on the Śāriputra.

My understanding of the three expressions that appear in 'Scripture B' corresponds to the contents of the *Prophecy of Enlightenment for Five Hundred Disciples Chapter* (五百弟子受記品) which tells of the Bodhisattva who pretended to be the *śrāvaka* (聲聞), within the monastic community.

According to this study, Śāriputra who was renowned as the foremost in wisdom (智慧第一) during early Buddhism, is also regarded as the Great Bodhisattva who practiced the bodhisattva-way with a figure of *śrāvaka*.

Key words: Lotus Sutra, Chapter of A Parable, Śākyamunibodhisattva, Bodhisattva-practice of Śāriputra, Bodhisattva-promise, Bodhisattva-secret, Bodhisattva-mighty will

2018년	11월 19일	투고
2018년	12월 4일	심사완료
2018년	12월 7일	게재확정

www.kci.go.kr